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보 도 자 료 http://www.hira.or.kr			
		배 포 일	2018년 3월 28일	매수	17매
		보도일시	3월 29일(목) 조간 3월 28일(수) 12:00 이후 보도		
자료문의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관리부	부 장	김 현 표		033-739-1050
		과 장	양 주 현		033-739-1052
배포부서	고객홍보실 홍보부	부 장	배 영 덕		033-739-0321
		차 장	김 미 선		02-705-6922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발간...질병정보+통계정보로 활용도 높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을 **통계로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장염, 관절염 등 국민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관점의 통계현황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 수록되었다.

* 장염, 관절염 등 85개 질병과 내시경, 사시 수술 등 15개 진료행위로 구성

○ 책자는 ▲ Part Ⅰ. 내과, 외과 분야 ▲ Part Ⅱ.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 Part Ⅲ.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였고,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 및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 각 질병별 세부 내용은 정의 및 원인, 증상 등 의학적 설명을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통계정보'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책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봄철 주의 할 질병, 알레르기성 결막염>

○ 2016년 기준 월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봄철(4월)에 28만 9천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 후 과민반응을 일으켜 결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이 원인이 되어 4월에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아이 성장 관련, 성조숙증>

○ 성조숙증이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이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말한다. 성장이 빠른 만큼 성장판이 일찍 닫혀 성인키가 작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성조숙증 환자 수는 2012년 5만 5천명에서 2016년 8만 6천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 증가나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도별 성조숙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55,333	66,395	72,246	75,945	86,352	11.8
	남자	4,695	5,817	6,251	6,654	7,957	14.1
	여자	50,638	60,578	65,995	69,291	78,395	11.5
진료비		29,171,195	34,165,359	38,159,666	38,643,361	43,579,370	10.6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중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 퇴행성관절염>

○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2016년 여자 252만 명, 남자 116만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많고, 여자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60대에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중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하고,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로 퇴행성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체중 관리, 조기 검진 등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2016년 성별 · 연령별 퇴행성관절염 환자수〉

[단위: 명, %]

구 분	전 체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3,679,900	6,008	29,399	65,418	117,053	328,631	911,023	1,090,928	890,212	328,553
(%)	(100.0)	(0.2)	(0.8)	(1.8)	(3.2)	(8.9)	(24.8)	(29.6)	(24.2)	(8.9)
남자	1,160,173	3,278	16,746	34,946	59,240	130,012	276,272	329,448	252,907	79,631
(%)	(100.0)	(0.3)	(1.4)	(3.0)	(5.1)	(11.2)	(23.8)	(28.4)	(21.8)	(6.9)
여자	2,519,727	2,730	12,653	30,472	57,813	198,619	634,751	761,480	637,305	248,922
(%)	(100.0)	(0.1)	(0.5)	(1.2)	(2.3)	(7.9)	(25.2)	(30.2)	(25.3)	(9.9)

<사회적 관심이 많은 질환, 공황장애>

○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2012년 8만 3천명에서 2016년 12만 7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공황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이 질병에 대해 알게 되고, 예전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사회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공황장애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83,480	93,098	98,070	111,109	127,053	11.1
	남자	40,048	43,864	45,939	52,030	59,472	10.4
	여자	43,432	49,234	52,131	59,079	67,581	11.7
진료비		22,984,832	25,336,801	27,217,053	31,096,014	36,930,431	12.6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암 사망원인 1위, 폐암>

○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 4천명에서 2016년 8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다.

- 폐암은 암 사망원인 1위(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 통계)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면 진행이 되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연도별 폐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64,377	68,543	70,533	73,765	79,868	5.5
	남자	43,467	45,926	46,670	48,416	51,910	4.5
	여자	20,910	22,617	23,863	25,349	27,958	7.5
진료비	전체	411,779,570	438,799,255	449,664,384	456,157,502	543,423,542	7.2
	외래	122,085,169	131,098,693	135,914,760	134,557,165	162,069,085	7.3
	입원	289,694,401	307,700,562	317,839,334	321,600,337	381,354,456	7.1

□ 심사평가원은 발간된 책자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책자를 배부하고, e-book으로도 제작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 게시위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간행물>HIRA e-book

○ 책자에 수록된 통계는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용방법: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 의료통계정보 ▶ 질병/행위별 의료통계 ▶국민관심통계(질병통계, 진료행위통계, 질병/행위통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질병 통계 제공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 보건의료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표지

[붙임 2]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목차

[붙임 3]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수록 내용(예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1]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표지

발 간 등 록 번 호
G000FJ1-2018-20

opendata.hira.or.kr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2]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목차

Ⅰ.내·외과(1~37번), Ⅱ. 피부,비뇨,안·이비인후과(38~65번), Ⅲ.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66~100번)

구 분	항 목	구 분	항 목
호흡기계	1. 감기 2. 인플루엔자 3. 폐렴 4. 만성폐쇄성폐질환 5. 결핵 6. 기흉	눈 및 눈 부속기	51. 각막염 52. 안구건조증 53. 알레르기성 결막염 54. 망막(맥락막, 유리체) 질환 55. 근시 56. 백내장 57. 녹내장 58. 녹내장 수술 59.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 수술 60. 사시 수술 61. 각막이식
소화기계	7. 장염 8. 치질 9. 간염(A형, B형, C형 간염) 10. 지방간 11. 궤양성대장염 및 크론병		
순환기계	12. 고혈압 13. 협심증 14. 심근경색증 15.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16. 관상동맥 우회술(CABG)	귀,코,입	62. 비염 63. 중이염 64. 코골이 수술 65. 구순구개열
내분비계	17. 당뇨병 18. 당뇨병성 족부궤양 19. 비만 20. 성조숙증	정신건강	66. 우울증 67. 불면증 68. 치매 69. 공황장애 70. 조현병 71. 조울증 72. 알코올중독증 73. ADHD(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74. 자폐증 7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76. 폭식증 77. 거식증
조혈기관	21. 빈혈 22. 백혈병		
신경계	23. 목 디스크 24. 뇌경색 25. 뇌출혈 26. 뇌전증 27. 뇌수막염		
근골격계	28. 퇴행성관절염 29. 인공관절 치환술(고관절) 30.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31. 류마티스관절염 32. 골절 33. 대퇴경부골절 34. 골다공증 35. 골밀도 검사 36. 오십견 37. 통풍	악성 신생물	78. 위암 79. 대장암 80. 폐암 81. 간암 82. 전립선암 83. 자궁경부암 84. 방광암 85. 신장암 86. 피부암 87. 췌장암 88. 자궁내막암
피부, 피하조직	38. 접촉성피부염 39. 아토피피부염 40. 화상 41. 탈모 42. 건선	감염 및 외인의 영향	89. 성병 90. 패혈증 91. 식중독 92. 폭염 93. 벌 쏘임 94. 뱀 물림
비뇨, 생식기	43. 방광염 44. 요로결석 45. 요실금 46. 자궁근종 47. 불임	치아	95. 치주질환 및 치은염 96. 치아우식증(충치) 97. 임플란트
임신,출산	48. 분만건수 49. 조기진통 50. 다태아 임신	영상 검사	98. CT 99. MRI 100.PET

※ 질병에 따른 진료분야 구분은 책자 구성을 위한 것으로 진료과를 분류하는 절대 기준이 아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3]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수록 내용(예시)

53 알레르기성 결막염

추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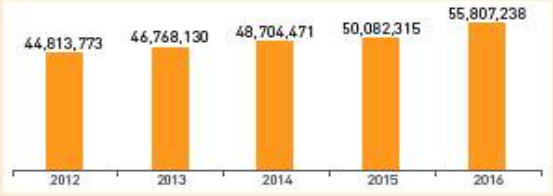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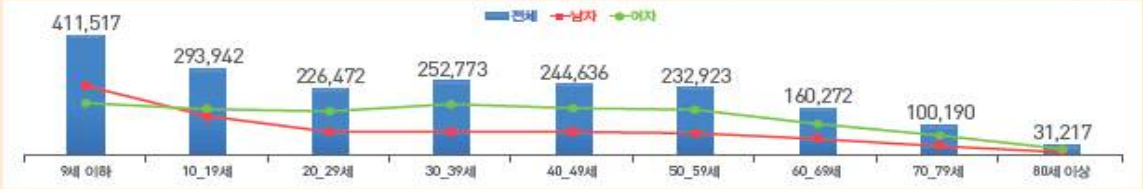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비 추이

(단위: 천 원)



2016년 성별 연령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 분포

(단위: 명)



2016년 월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 분포

(단위: 명)



질병정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하여 결막에 과민반응을 유발하여 발생한 결막의 염증 질환을 말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은 봄철 꽃가루, 공기 중 먼지, 곰팡이, 음식물, 화장품 등 매우 다양하다.

위험요인	증상	치료	예방
• 봄철의 꽃가루 • 공기 중 먼지 • 동물의 비듬 • 집먼지 진드기 등	•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 • 결막의 충혈 •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전반적인 통증 • 눈부심 및 눈물 흘림 등	• 약물 치료 -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 사용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을 피함 • 손 씻기 • 환경 위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통계정보

■ 통계 산출 기준

질병코드	질병 명칭	질병코드	질병 명칭
H101	급성 아토피결막염	H1625	봄철 각막 결막염, 윤부 및 각막을 침범

■ 주요 통계현황

•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연간 평균 187만 명 정도로간 변화가 없으나, 진료비는 2012년 448억 원에서 2016년 558억 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였다.

– 진료비 증가는 2012년 대비 2016년 연령별 환자수 및 진료비를 비교해 볼 때 40세 이상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여 진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1,867,783	1,893,621	1,851,785	1,813,951	1,939,999	1.0
	남자	719,103	738,104	720,930	710,688	771,206	1.8
	여자	1,148,680	1,155,517	1,130,855	1,103,263	1,168,793	0.4
진료비		44,813,773	46,768,130	48,704,471	50,082,315	55,807,238	5.6

〈2012년 대비 2016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 및 진료비 현황〉

구분	진료인원(명)		
	2012년	2016년	증감률(%)
9세 이하	368,928	411,517	11.5
10-19세	357,806	293,942	-17.8
20-29세	228,352	226,472	-0.8
30-39세	259,766	252,773	-2.7
40-49세	227,441	244,636	7.6
50-59세	202,656	232,923	14.9
60-69세	128,884	160,272	24.4
70-79세	87,313	100,190	14.7
80세 이상	20,649	31,217	51.2

구분	진료비(천 원)		
	2012년	2016년	증감률(%)
9세 이하	8,865,366	11,631,008	31.2
10-19세	8,015,456	7,731,733	-3.5
20-29세	4,999,179	5,923,568	18.5
30-39세	5,782,238	6,784,735	17.3
40-49세	5,274,444	6,889,031	30.6
50-59세	5,028,011	6,962,363	38.5
60-69세	3,539,658	5,174,508	46.2
70-79세	2,669,601	3,586,945	34.4
80세 이상	639,819	1,123,346	75.6

• 2016년 기준 월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를 살펴보면 꽃가루,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인해 봄부터 환자가 증가하다가 가을, 겨울에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2016년 월별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

(단위: 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5,182	146,169	185,314	288,953	251,518	224,065	248,737	304,922	313,932	210,240	178,187	157,956
(7.5)	(7.5)	(9.6)	(14.9)	(13.0)	(11.5)	(12.8)	(15.7)	(16.2)	(10.8)	(9.2)	(8.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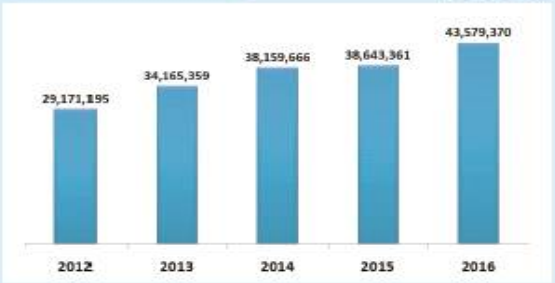
20 성조숙증

추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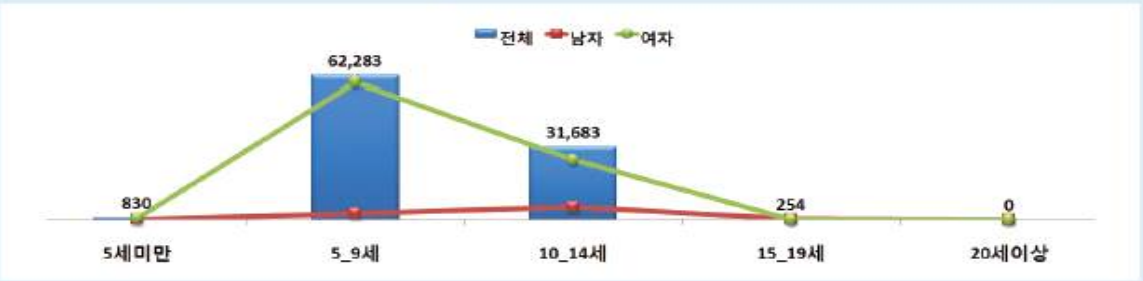
성조숙증 환자수 추이 (단위: 명)



성조숙증 진료비 추이 (단위: 천 원)



2016년 성별 연령별 성조숙증 환자수 분포 (단위: 명)



질병정보

성조숙증이란 이차 성징(사춘기 발달)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아는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음모가 발달하는 경우, 남아는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경우 등을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성조숙증인 경우 성장이 빠른 만큼 성장판이 일찍 닫혀 성인키가 작을 확률이 높으므로 평소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요인	증상	치료	예방
• 난소, 고환 종양 • 대뇌 병소 • 유전 • 비만	• 유방 조기발육증 • 음모 조기발생증 • 초경 조기발생증	•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 • 테스토스테론 억제제 • 에스트로겐 억제제	• 규칙적인 운동 • 다양한 영양소 섭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통계정보

■ 통계 산출기준

질병코드	질병 명칭
E301	조발사춘기

■ 주요 통계현황

•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만 5,333명에서 2016년 8만 6,352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12년 292억 원에서 2016년 436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하였다.

– 성조숙증 환자의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및 환경호르몬의 노출 증가 등이 원인이 된다. 또한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연도별 성조숙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55,333	66,395	72,246	75,945	86,352	11.8
	남자	4,695	5,817	6,251	6,654	7,957	14.1
	여자	50,638	60,578	65,995	69,291	78,395	11.5
진료비		29,171,195	34,165,359	38,159,666	38,643,361	43,579,370	10.6

• 2016년 기준 성별 성조숙증 환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0~14세에 5,497명(69.1%)으로 가장 많고, 여자는 5~9세에 5만 9,616명(76.0%)으로 가장 많았다.

– 성조숙증이 여자에서 더 많은 이유는 여자 아이는 유방이 발달하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신체변화를 나타내지만, 남자아이는 고환이 커지는 증상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늦게 진단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성별 · 연령별 성조숙증 환자수〉

(단위: 명, %)

구 분	전 체	5세 미만	5~9세	10~14세	15~19세	20세 이상
전체	86,352	830	62,283	31,683	254	0
(%)	(100.0)	(1.0)	(72.1)	(36.7)	(0.3)	-
남자	7,957	74	2,667	5,497	166	0
(%)	(100.0)	(0.9)	(33.5)	(69.1)	(2.1)	-
여자	78,395	756	59,616	26,186	88	0
(%)	(100.0)	(1.0)	(76.0)	(33.4)	(0.1)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28 퇴행성관절염

추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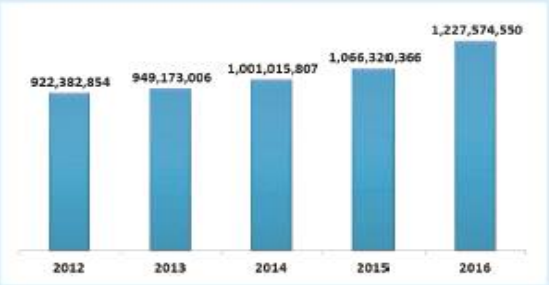
퇴행성관절염 환자수 추이

(단위: 명)



퇴행성관절염 진료비 추이

(단위: 천 원)



2016년 성별 연령별 퇴행성관절염 환자수 분포

(단위: 명)



질병정보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일차성 또는 특발성 관절염과 이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으로 분류된다.



위험요인	증상	치료	예방
• 일차성 관절염 - 나이, 성별 - 유전적 요소 등 • 이차성 관절염 - 외상, 관절 연골의 손상	• 병변부위 통증 • 관절의 운동 제한	• 생활습관 개선 • 주사치료(관절강내 약물 주입술, 신경 블록) • 수술적 치료 - 관절경, 절골술 등	• 적정 체중 유지 • 적당한 운동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통계정보

■ 통계 산출기준

질병코드	질병 명칭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 주요 통계현황

•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12년 328만 명 대비 2016년 368만 명으로 40만 명(12.3%)이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2년 9,224억 원 대비 2016년 1조 2,276억 원으로 3,052억 원(33.1%)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퇴행성관절염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3,276,590	3,336,891	3,451,686	3,529,067	3,679,900	2.9
	남자	986,499	1,018,797	1,067,171	1,104,134	1,160,173	4.1
	여자	2,290,091	2,318,094	2,384,515	2,424,933	2,519,727	2.4
진료비		922,382,854	949,173,006	1,001,015,807	1,066,320,366	1,227,574,550	7.4

• 2016년 기준 성별 연령별 퇴행성관절염 환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남자에 비해 근육량이 작고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이 생기기 더 쉬우므로 체중관리, 조기 검진 등 관리가 필요하다.

〈2016년 성별 · 연령별 퇴행성관절염 환자수〉

(단위: 명, %)

구 분	전 체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3,679,900	6,008	29,399	65,418	117,053	328,631	911,023	1,090,928	890,212	328,553
(%)	(100.0)	(0.2)	(0.8)	(1.8)	(3.2)	(8.9)	(24.8)	(29.6)	(24.2)	(8.9)
남자	1,160,173	3,278	16,746	34,946	59,240	130,012	276,272	329,448	252,907	79,631
(%)	(100.0)	(0.3)	(1.4)	(3.0)	(5.1)	(11.2)	(23.8)	(28.4)	(21.8)	(6.9)
여자	2,519,727	2,730	12,653	30,472	57,813	198,619	634,751	761,480	637,305	248,922
(%)	(100.0)	(0.1)	(0.5)	(1.2)	(2.3)	(7.9)	(25.2)	(30.2)	(25.3)	(9.9)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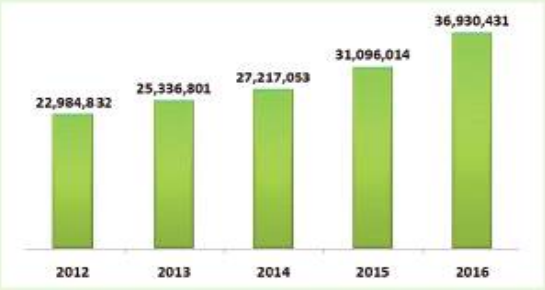
69 공황장애

추이 및 현황

공황장애 환자수 추이 (단위: 명)



공황장애 진료비 추이 (단위: 천 원)



2016년 성별 연령별 공황장애 환자수 분포 (단위: 명)



질병정보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한다.

위험요인	증 상	치료 및 예방
• 정신적 스트레스 • 신체감각의 변화 • 공황발작 유발 물질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힘 • 몸이 떨리고, 땀이 남 • 죽을 것 같은 공포감 •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 자신이 내가 아닌듯한 느낌 등	• 약물치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등) • 인지행동치료 (왜곡된 생각, 행동을 교정) • 술, 카페인 식품 피하기 • 평상시 호흡조절이나 이완요법을 연습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통계정보

■ 통계 산출기준

질병코드	질병 명칭
F400	광장공포증
F410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 주요 통계현황

•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8만 3,480명에서 2016년 12만 7,053명으로 연평균 11.1%가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12년 230억 원에서 2016년 369억 원으로 139억 원이 증가하였다.

– 공황장애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로는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들이 질병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예전에는 정신과 진료의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사회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공황장애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83,480	93,098	98,070	111,109	127,053	11.1
	남자	40,048	43,864	45,939	52,030	59,472	10.4
	여자	43,432	49,234	52,131	59,079	67,581	11.7
진료비		22,984,832	25,336,801	27,217,053	31,096,014	36,930,431	12.6

• 2016년 기준 연령별 공황장애 환자수 분포를 보면 40대가 33,540명(26.4%)으로 가장 많고 50대 28,672명(22.6%), 30대 24,294명(19.1%) 순이었다. 전체 공황장애 환자 10명 중 7명이 중장년층인 3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성별 · 연령별 공황장애 환자수〉

(단위: 명, %)

구 분	전 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	127,053	2,439	13,238	24,294	33,540	28,672	16,826	9,539	3,410
	(100.0)	(1.9)	(10.4)	(19.1)	(26.4)	(22.6)	(13.2)	(7.5)	(2.7)
남자 (%)	59,472	1,171	6,124	11,914	16,831	13,498	7,230	3,947	1,246
	(100.0)	(2.0)	(10.3)	(20.0)	(28.3)	(22.7)	(12.2)	(6.6)	(2.1)
여자 (%)	67,581	1,268	7,114	12,380	16,709	15,174	9,596	5,592	2,164
	(100.0)	(1.9)	(10.5)	(18.3)	(24.7)	(22.5)	(14.2)	(8.3)	(3.2)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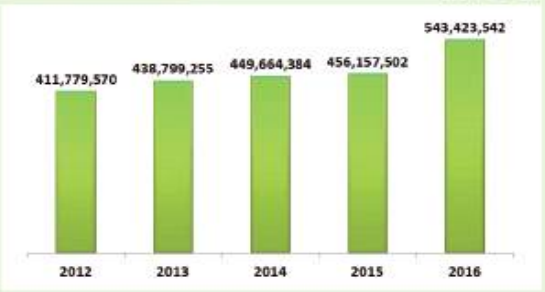
80 폐암

추이 및 현황

폐암 환자수 추이 (단위: 명)



폐암 진료비 추이 (단위: 천 원)



2016년 성별 연령별 폐암 환자수 분포 (단위: 명)



질병정보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폐암은 조직검사의 결과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소세포암은 조기진단 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나뉜다. 소세포암은 전반적으로 악성이 강하고 초기발견이 어려워 다른 장기에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위험요인	증상	치료	예방
• 흡연(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 간접흡연 • 석면, 라돈 등 금속물질 • 폐 섬유증	• 기침 • 객혈 • 흉통 • 호흡곤란	• 수술(폐절제술) • 방사선치료 • 항암 · 화학요법	•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이미 흡연자라면 금연에 힘써야 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통계정보

■ 통계 산출기준

질병코드	질병 명칭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D002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 암종

■ 주요 통계현황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중 1위(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 통계)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률이 50%가 넘지만 진행된 후에는 생존률이 15%로 떨어진다.

• 폐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64,377명 대비 2016년 79,868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2년 4,118억 원 대비 2016년 5,434억 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였다.

〈연도별 폐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2~2016년)〉

(단위: 명, 천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환자수	전체	64,377	68,543	70,533	73,765	79,868	5.5
	남자	43,467	45,926	46,670	48,416	51,910	4.5
	여자	20,910	22,617	23,863	25,349	27,958	7.5
진료비	전체	411,779,570	438,799,255	449,664,384	456,157,502	543,423,542	7.2
	외래	122,085,169	131,098,693	135,914,760	134,557,165	162,069,085	7.3
	입원	289,694,401	307,700,562	317,839,334	321,600,337	381,354,456	7.1

• 2016년 기준 폐암 환자수를 성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5만 1,910명, 여자가 2만 7,95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후 증가하여 70대가 27,868명(3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면 진행이 많이 되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40세 이상 장기 흡연자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폐암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하다.

〈2016년 성별 · 연령별 폐암 환자수〉

(단위: 명, %)

구 분	전체	20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79,868	222	813	3,778	14,204	25,929	27,869	10,576
(%)	(100)	(0.3)	(1.0)	(4.5)	(17.0)	(31.1)	(33.4)	(12.7)
남자	51,910	126	384	1,886	7,939	17,470	19,651	6,690
(%)	(100)	(0.2)	(0.7)	(3.5)	(14.7)	(32.3)	(36.3)	(12.4)
여자	27,958	96	429	1,892	6,265	8,459	8,218	3,886
(%)	(100)	(0.3)	(1.5)	(6.5)	(21.4)	(28.9)	(28.1)	(13.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